

해외 WORLD

이치란 조계종 국제교류위원의 제6회 유엔 웨삭의 날 참가기

‘더 이상 전쟁 없기를’ 방콕선언 발표

유엔이 지정한 ‘웨삭의 날(UN Day of Vesak)’ 국제대회 행사가 5월 4-6일 개최됐다. 전통적으로 남방불교권에서는 음력 4월 보름날을 ‘웨삭의 날’이라고 해서 부처님 탄생, 성도와 열반을 동시에 기리고 있다. 1998년 11월 스리랑카에서 열린 ‘국제불교총회’에서 전 세계 모든 불교도들이 함께 매년 양력 5월 보름날(음력 4월 15일)을 ‘웨삭의 날’로 기념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엔에 제출, 유엔총회에서 가결됐다.

2004년부터 해마다 열린 유엔 ‘웨삭의 날’은 1-4회는 태국에서, 5회는 베트남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6회 유엔 웨삭의 날’ 행사는 다시 태국에서 개최됐으며 77개국에서 1200여 명의 대표와 태국 국내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 해마다 진월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채널에서 50여 명이 참가했다.

첫날인 4일은 나콘팜 주(州)의 붓다몬톤(Buddhamonthon) 대강당에서 태국 승가 원로회의 의장 썬트 프라 붓다차리아(Somder Phra Buddhacharya, President of the Executive Committee for Supreme Patriarch of Thailand) 부(副) 승왕과 태국공주 부총리 등과 외교사절 등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태국 승가 부(副) 승왕의 법어와 각각 대표들의 메시지 낭독의 순으로 개회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메시지는 진월 스님이 대독했다. 이곳 붓다몬톤(불국정토)은 1957년 40헥타르의 넓은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15.87m의 서있는 대불을 세워 웨삭의 날 행사 등 대형불교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5일 두 번째 날은 마하출라롱컨불교대학교 캠퍼스에서 ‘지구촌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접근(Buddhist Approach to Global Crisis)’이란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정치적 분쟁과 평화발전을 불교적 시각으로 접근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세계불교대학 연합회 워크숍(ABU) △공통불교 텍스트프로젝트 △불교 전자 정보와 네트워크로 진지한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진월 스님은 환경적위기에 대한 불교적 접근 분과에서 ‘생태학적 이해와 10계(戒)의 실천’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으며, 총무원 사회부 홍민석 행정관은 세계 각국 불교계 대표들에게 조계종을 홍보하는데 동분서주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회 유엔 웨삭의 날’ 대회에 참가한 이치란 위원.

셋째 날인 5월 6일에는 UN 방콕 센터에서 태국 총리 아비시트 베자바하(H.E. Prime Minister Abhisit Vejjajiva),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유네스코와 각각 대통령 수상들의 축사 및 메시지가 낭독됐다.

폐회식에서는 각각 대표들은 ‘더 이상의 전쟁 없기를(No more War!)’의 방콕 선언문을 통해 △윤리·사회적 정의 △협력과 근면 △순결함과 나눔의 가치 등을 실현할 것을 선언하고 붓다 문본에서 세계평화기원 촛불행사를 봉행했다.

이번 웨삭의 날 국제대회는 지구촌의 환경, 경제, 정치적 위기와 평화발전에 대한 불교적 모색과 대안을 제시한 60여 명의 세계적 석학들의 두툼한 세 권의 논문집 결실의 성과를 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유엔 웨삭의 날 행사는 일본과 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다.

중국 불교 전래 시기 진시황 때?

중국 한(漢)대에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통설을 깨는 학설이 제기되는 경향을 끈다.

5월 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고고학연구소의 한웨이(韓偉) 연구원은 ‘불교의 중국 유입시기는 진시황 시대’를 통해 ‘중국에 불교가 유입된 시기는 한(漢)대가 아니라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秦始皇)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사마천이 지은 역사서인 <사기>의 진시황 시대 기록에 진부르스(禁不得)란 표현이 나온다”며 “여기서 ‘부르스’란 불교 사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교의 발전을 볼 때 인도의 아소카 왕이 기원전 4세기에 인도를 통일했고 8개 국가에 사리를 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면서 “당시는 중국에서 전국시대 중반이었다”고 밝혔다. 이너는 기자

수행하듯 아픈 이웃에 의술 베풀어

선재마을의료회 10주년... 3만여 명에 자비 의료행 펼쳐

재가복지 의료단체인 ‘한국불교 선재마을의료회(회장 이강훈, 이하 선재마을의료회)’가 10주년을 맞이했다.

매주 일요일 서울 봉은사, 부천 석왕사, 수요일에는 서울역에서 10년 동안 3만 여 이웃에게 자비 의료행을 펼친 선재마을의료회가 5월 24일 10주년 행사를 갖는다.

10년간 순수 신생활동으로 시작된 회원들에게 청진기와 주사는 죽비와 목탁이었고 진료소는 수행공간이며, 진료는 곧 법회였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정기 봉사활동 외에도 지방 사찰의 대종스님,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 수해지역, 몽골, 중국 등으로 국내·외 순회 진료까지 그들의 의료봉사활동 영역은 무한지대다.

선재마을의료회가 진료봉사를 시작한 것은 전 국민이 IMF로 실의의 나라에 빠져 있던 1999년, 80여 의



선재마을의료회의 지역 순회 진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간호사·약사들은 부처님 법실현에 뜻을 모아 외국인 노동자와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강남 봉은사에서 의료보시를 시작했다. 2001년 4월에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해 진료소를 만들고, 2003년 7월 부천 석왕사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료 진료소를 개원하는 등 의사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보살펴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매일 국제보건 의료재단의 의료버스 지원으로 버스에 장착된 치료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체어 및 초음파기, 엑스레이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질 높은 의료봉사를 하게 됐다.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 진료에 주력하고 있다. 선재마을의료회에 1차 진료를 담당하고 2-3차 진

료를 책임지고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 탐방 진료도 계획 중이다.

순회진료를 받았던 동학사 스님은 “육심과 독심으로 자기 밥그릇 채우기 급급한 우리 사회가 그나마 평형감을 유지하는 것은 선재마을의료회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따뜻한 손길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재마을을 살린인 여오숙 부회장은 “10여 년을 함께해온 의사선생님, 약사님, 간호사님, 일반 자원봉사자님, 학생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돼 주고 있다”며 “처음에는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좋은 분들을 통해 나를 키워 가는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 무료 진료를 받고 만족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감사한 마음까지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02549-1709 이선민 기자 un82@buddhapia.com)

소년가장돕기 10년 먹거리나눔기협 등 행사

국내최대 민간 먹거리나눔운동기구인 먹거리나눔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오, 김재열, 배태진, 이경림)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와 5월 4일 소년소녀가장돕기 시행 10주년을 맞아 후원아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충남 아산, 전남 신안, 경남 마산, 전북 익산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후원아동 135명을 비롯한 총 208명의 가족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진 뒤 에버랜드를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대오 스님, 김재열·배태진·이경림 공동대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변호사도 참석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은 1999년 12월 첫 후원금을 전달한 이래 현재까지 참여회원 연인원 3328명, 후원아동 연인원 2273명에 이르고 있다. (02734-5004 이너는 기자

생명나눔 자비의 쌀 첫 지급 치료비 지원신청자 중 미 선정자 17명 수혜

생명나눔 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5월 12일 2009년 신규 사업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자비의 쌀 나누기 사업은 생명나눔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0kg의 쌀 1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서 일면 스님은 “많은 분들이 성의껏 지원해 모인 금액이니 주는 분들의 성의를 봐서 감사히 받아주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내에 치료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다”고 환우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달식은 2009년 부처님오신날 불족 기획위원회의 ‘자비의 손

길 행사’에서 지원한 100만원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자발적으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쌀 아홉 가마(80kg)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월부터 6월 치료비 지원신청자중 미선정자 17명이 쌀을 전달 받았다.

한편 이날 생명나눔은 ‘4월 선정 환자 지원금 전달식’도 가졌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니르바나오케스트라, 봉은사 방생모임 마야회 등과의 연대·특별지원, 4월 정가지원 등으로 모인 총 3240만원의 치료비를 13명의 환자들에게 지원했다. (02734-8050 이너는 기자

치료실 활용 협약 단양복지관·교육청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혜두)은 4월 29일 충청북도단양교육청(교육장 정가홍)과 치료실 공동 활용 협약을 맺고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놀이치료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단양교육청은 언어·놀이치료에 필요한 3000여 만원 상당의 교재·교구를 대여하고, 복지관은 3개의 치료실을 단양교육청의 치료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지군에서의 치료교육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협약식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사회의 치료교육센터로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최첨단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복지관 계열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사회 공동 활용에 힘쓰고 있다. (043)421-2828 이너는 기자

대한불교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
취임법회

종도모집 안내

대한불교 선밀종

대한불교진각종에서는 “이웃 사회와 함께하는 참회·수행 그리고 회향”의 정신을 모아 제28대 혜정 통리원장 취임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불기2553(2009)년 5월 26일(화요일) 오후 2시
(행사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진선여자중·고등학교 내 회당기념관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13번지 Tel. 02-567-6853)

| 문의 : Tel. 02)913-0751~4(내선 113-116) Fax. 02)913-0755

대한불교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 취임법회 봉행위원회

☞ 봉행위원회에서는 축하의 뜻으로 전해주시는 화환을 대신하여 ‘자비의 쌀’을 모아 우리이웃의 다문화 가정과 위기가정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하여 주신 쌀은 동참자의 이름을 담아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문의 : 송파농협 하나로마트 세곡점 02)445-8123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번지 (2-3층)

대한불교 선밀종 총무원

전화 053)311-2677 / 010-3134-8484